

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00-000371-10



2022 |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도민의 삶과 정책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연구 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는 지역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자료에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 인용된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표는 연구자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처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권역구분은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내륙권(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금산, 논산, 부여)으로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지역특성 구분(도시, 농어촌)은 현장조사원이 조사구별로 분류한 결과 이므로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서 통계표의 개별 계층별 사례수가 적은 경우는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도민의 삶과 정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연구자의 견해이며,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CONTENTS

01. 가구와 가족

충남도민의 결혼과 출산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오정아)1

02. 주거와 교통

이주의향 결정요인:주거환경의 역할(홍성효, 임준홍)37

가구와 가족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1. 충남도민의 결혼과 출산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적 함의

요 약

오 정 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 본 연구는 충남도민의 저출산 인식에 대한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충남도 저출산 정책 수립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2022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5세에서 39세까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저출산 정책을 우선함.
- 40세 이하 충남도민의 결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결혼생각 있다’는 응답이 61.5%, ‘결혼 생각 없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22.8%가 결혼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여 청년층 결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책욕구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령의 경우 15~19세, 20대에 비해 30대가 ‘결혼생각 없다’는 응답이 27.6%로 높게 나타나 30대 청년층이 당면한 어려움을 제거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자녀출산 계획에 관해 ‘출산 계획 없다’는 응답이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의 경우 출산계획 없다는 비중이 64.1%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는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임.
- 결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양육 부담, 저출산 정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공동체의식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권역, 거주기간,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음.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 정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공동체의식이 평균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며, 차이가 검증된 요인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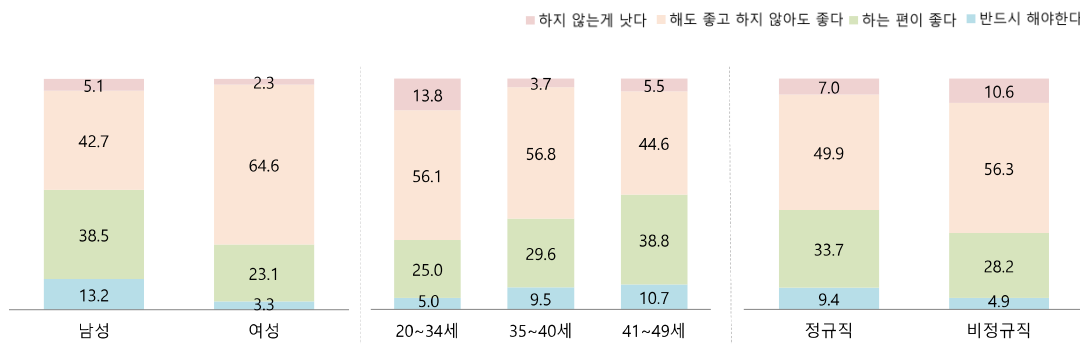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현재 0.78명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임(2022). 2020 충청남도 내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조사에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을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높게 나타났음. 이는 충청남도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1-1> 충청남도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도

(단위 : %)



자료 : 오정아 외(2020). 충청남도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함. 일각에서는 청년층의 취업과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과 같은 고용불안정성이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우리사회 결혼과 출산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 현상을 강화시킨다고 보고 있음. 이중 가치관 변화가 결혼과 출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힘이 더해지고 있지만, 학계 그리고 대중은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과 가치관 변화 모두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음.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고 충남도 역시 예외는 아님.

충남도도 지난 민선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슬로건 하에 충남형 아기수당을 비롯하여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충남도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였음. 그럼에도 충남도 합계출산율은 해마다 감소하였음. 저출산과 같이 복합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현안은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은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보다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또한 결혼과 출산 의도는 개인의 주관적 태도의 영향을 받지만, 이러한 주관적 태도는 가족과 사회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만 치부할 수 없음. 따라서 충청남도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지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충남도 저출산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충청남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제시한 청년의 연령이 19세부터 39세까지이지만, 가까운 미래 청년의 연령에 진입하는 15세부터 18세 연령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배제된다면 또다시 저출산 정책이 근시안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결혼인식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의향을 출산인식으로 보아 15세부터 39세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충남도 저출산 정책의 수립의 근거기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충청남도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충남도 저출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충남도민의 결혼인식과 출산에 대한 인식 분석

충남도의 충남사회조사 2022년 자료를 이용해 결혼에 대한 인식과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출산계획과 출산의향이 없는 이유, 임신·출산·육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출산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수준이 성별, 연령별, 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함.¹⁾

나. 충남도민의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충남도민의 결혼인식 제고 및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본고가 결혼인식과 출산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임에 주목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60세 이상 조사대상자(49%)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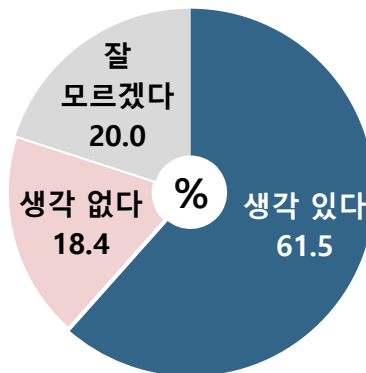
2. 충남도민의 결혼과 출산

1)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인식은 '결혼생각' 여부를 가지고 측정하였으며 결혼적령기를 고려하여 충남도민 40세 이하 청년층으로 대상을 통제한 후 분석하였음. 충남도민 청년층의 결혼인식은 '결혼생각 있다'는 응답이 61.5%, '결혼 생각 없다'는 응답이 18.4%, '모르겠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결혼생각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결혼생각이 '없다', '모르겠다'와 같이 부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견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 나아가 출산계획과도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2> 결혼 의향

(단위 : %)



<표 1-1> 결혼 의향

(단위 : %)

구분	생각 있다	생각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61.5	18.4	2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의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χ^2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부채여부, 거주기간,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 결혼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서 남성은 '결혼생각 있다'가 65.6%로 여성 56.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0)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대 연령층의 '결혼생각 있다'는 응답이 15~19세, 3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 학력은 고졸 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 이상 집단이 '결혼 생각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p=.000).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결혼생각 있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고 부채가 있는 경우보다 부채가 없는 경우 '결혼생각 있다'에 64.6%의 응답을 보였고(p=.002)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결혼 생각 있다'는 응답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p=.000). 주거점유 형태는 자기집과 월세/기타인 경우가 전세인 경우에 비해 '결혼 생각 있다'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결혼 의향

(단위 : %)

구분		생각 있다	생각 없다	잘 모르겠다	$\chi^2(p)$
성별	남성	65.6	15.0	19.3	34.969 (p=.000)***
	여성	56.2	22.8	21.0	
연령	15~19세	58.3	11.7	30	119.224 (p=.000)***
	20대	66.5	16.9	16.6	
	30대	56.2	27.6	16.2	
학력	고졸이하	56.5	18.6	24.9	30.304 (p=.000)***
	대학이상	64.9	18.3	16.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63.7	20.4	15.9	40.170 (p=.000)***
	비임금근로자	61.9	23.8	14.4	
	미취업자	59.5	16.0	24.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2.1	16.5	21.4	13.026 (p=.222)
	100~200만원 미만	59.7	24.8	15.4	
	200~300만원 미만	59.7	25.5	14.8	
	300~400만원 미만	65.1	19.8	15.1	
	400~500만원 미만	64.8	19.7	15.5	
	500만원 이상	59.5	28.4	12.2	
부채	부채있음	52.8	27.9	19.3	12.645 (p=.002)*
	부채없음	64.6	20.5	14.9	
권역	북부권	61.6	18.5	20.5	1.532 (p=.957)
	서해안권	63.4	18.0	18.7	
	내륙권	62.3	17.7	20.0	
	금강권	60.5	19.9	19.6	
거주기간	5년 미만	63.7	18.9	17.4	54.973 (p=.000)***
	5~10년 미만	53.9	5.2	20.9	
	10~15년 미만	62.0	17.2	20.8	
	15~20년 미만	56.8	14.6	28.6	
	20년 이상	64.6	19.3	16.2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61.6	16.6	21.8	12.532 (p=.014)**
	전세	60.6	19.2	20.2	
	월세/기타	61.7	20.9	17.3	

주 : 북부권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을,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을, 그리고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을 포함함.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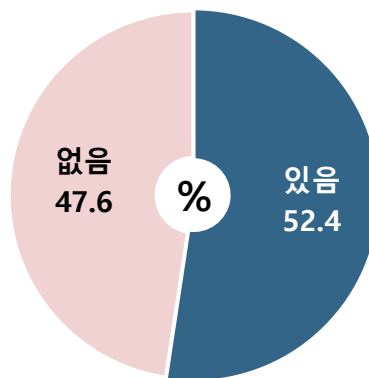


2) 자녀 출산 계획

자녀출산 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2.4%, ‘없다’는 응답이 47.6%로 나타났다.

<그림 1-3> 자녀 출산계획 여부

(단위 : %)



<표 1-3> 자녀 출산계획 여부

(단위 :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52.4	47.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을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부채, 권역, 거주기간,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62.1%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출산계획이 없다’ 응답이 57.5%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30대가 ‘출산계획이 없다’는 비중이 64.1%로 다른 연령대가 ‘출산계획이 있다’ 비중이 높은 점에 비추어 대조적인 결과임.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출산계획 여부가 각각 50.9%와 49.1%로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5.9%로 높게 나타났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5.5%로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자 중 상당수가 15~19세와 20대로 학생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 집단이 결혼인식 또한 높게 나타난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됨.

소득수준에서는 300만원을 기점으로 300만원 미만인 집단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고 300만원 이상 집단은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부채가 있는 경우에 '출산계획이 없다' 비중이 높고 부채가 없는 경우 '출산 계획 있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권역별로는 모든 집단이 '출산계획이 있다' 비중이 높은 가운데 서해안권이 가장 높고(57.3%), 북부권이 가장 낮게(50.6%) 나타났음. 거주기간은 5년 미만 집단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57.9%,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은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63.6%, 59.6%로 더 높게 나타났음. 15~20년 미만, 20년 이상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음. 주거점유 형태는 자기집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0.3%로 높았고 전세와 월세/기타는 '출산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50.8%, 58.3%로 더 높게 나타났음.



<표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 계획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chi^2(p)$
성별	남성	62.1	37.9	176.244 (p=.000)***
	여성	42.5	57.5	
연령	15~19세	68.2	31.8	483.361 (p=.000)***
	20대	68.7	31.3	
	30대	35.9	64.1	
학력	고졸이하	54.4	45.6	3.610 (p=.060)
	대학이상	51.4	48.6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50.9	49.1	40.170 (p=.000)***
	비임금근로자	44.1	55.9	
	미취업자	55.5	44.5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62.5	37.5	67.263 (p=.000)***
	100~200만원 미만	53.1	46.9	
	200~300만원 미만	57.3	42.7	
	300~400만원 미만	50.8	57.5	
	400~500만원 미만	42.5	57.5	
	500만원 이상	33.4	66.6	
부채	부채있음	39.1	60.9	62.447 (p=.000)***
	부채없음	57.7	42.3	
권역	북부권	50.6	49.4	8.095 (p=.031)*
	서해안권	57.3	42.7	
	내륙권	53.1	46.9	
	금강권	55.1	44.9	
거주기간	5년 미만	57.9	42.1	114.850 (p=.000)***
	5~10년 미만	36.4	63.6	
	10~15년 미만	40.4	59.6	
	15~20년 미만	59.7	40.3	
	20년 이상	54.6	45.4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49.7	50.3	27.215 (p=.000)***
	전세	50.8	49.2	
	월세/기타	58.3	41.7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자녀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주요 이유에 관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 경향을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았고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9.5%,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9.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5.2%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이유가 남성과 동일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44.5%), 다음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경우 남성이 자녀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자기개발이나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임.

<표 1-5>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19.5	24.9	33.7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님(친인척)이 없어서	5.9	7.3	10.3
자녀 양육(교육)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3.7	5.1	6.3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가 안전하지 않아서	3.5	3.7	6.6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28.7	44.0	44.5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10.9	18.4	15.7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19.3	35.2	26.2
기타	8.5	12.8	13.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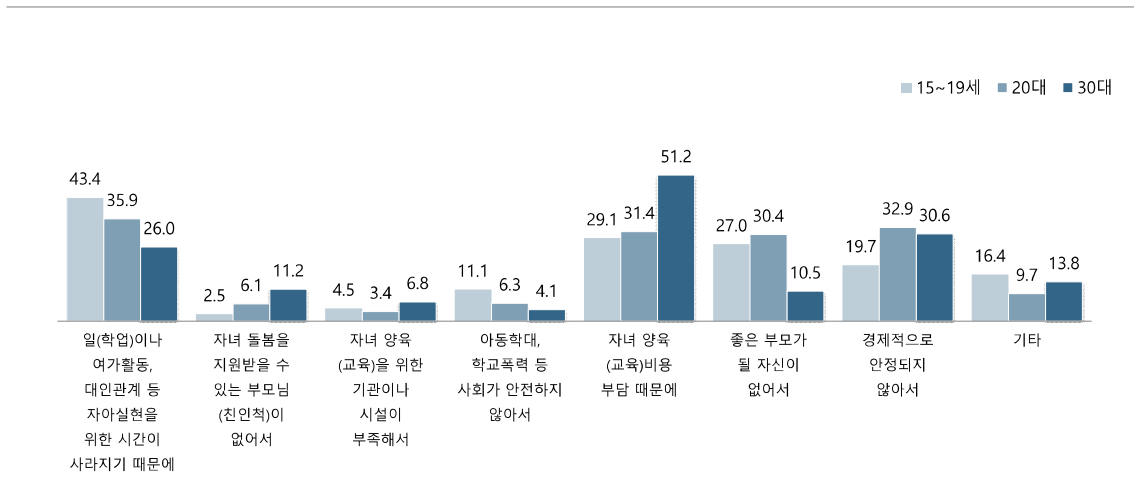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15~19세는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3.4%로 가장 높았고 20대의 경우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35.9%를 차지하고 이외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각각 32.9%, 31.4%, 30.4%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라는 이유가 51.2%로 다른 응답범주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연령층이 처한 다양한 상황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30대는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기피가 주목할만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그림 1-4>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



<표 1-6> 자녀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

구분	15~19세	20대	30대
일(학업)이나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 자아실현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43.4	35.9	26.0
자녀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모님(친인척)이 없어서	2.5	6.1	11.2
자녀 양육(교육)을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4.5	3.4	6.8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가 안전하지 않아서	11.1	6.3	4.1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 때문에	29.1	31.4	51.2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7.0	30.4	10.5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19.7	32.9	30.6
기타	16.4	9.7	13.8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2. 결혼과 출산인식의 영향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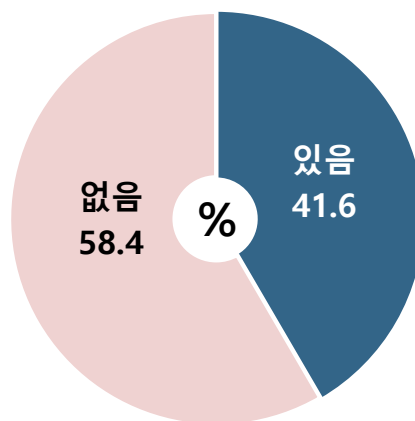
충남도민의 결혼인식과 출산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결혼과 자녀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이에 본고에서는 사회조사 data에 포함되어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 부담, 저출산 정책 만족도, 여가활동 만족, 근로여건 만족, 가족관계 만족, 공동체의식, 주거환경 만족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지위, 소득수준, 권역, 거주기간, 주거 점유형태)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마지막 3절에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결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요인을 탐색하기로 함.

1) 자녀양육 부담

자녀양육 부담에 관한 요인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부'를 가지고 살펴보았음. 응답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경력단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1.6%로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음.

<그림 1-5> 경력단절 여부

(단위 : %)





<표 1-7> 경력단절 여부

(단위 :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41.6	58.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2) 저출산 정책 만족도

저출산 정책 만족도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였음.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2%, ‘보통이다’ 49.1%, ‘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3.1%로(전체 평균은 2.94점) 임신·출산·육아 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에 대해 평균 수준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8>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만족

(단위 : 점, %)

구분	전체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2.94	5.8	21.2	49.1	20.8	3.1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임신·출산·육아 복지서비스 제공 만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과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부채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2$) 종사상지위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 집단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p=.011$). 소득수준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복지서비스는 500만원 이상 집단에 비해 200~300만원 집단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부채가 없는 경우 만족도가 더 높았음($p=.000$).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복지서비스 제공 만족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2.96	.86	10.019 (p=.002)**
	여성	2.92	.89	
학력	고졸이하	3.00	.83	10.822 (p=.001)***
	대학이상	2.92	.89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92	.89	4.515 (p=.011)* a,c<b
	비임금근로자	3.10	.90	
	미취업자	2.94	.84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07	.79	4.061 (p=.001)*** f<c
	100~200만원 미만	2.91	.76	
	200~300만원 미만	3.05	.84	
	300~400만원 미만	3.00	.95	
	400~500만원 미만	2.78	.91	
	500만원 이상	2.80	.88	
부채	부채있음	2.92	.95	16.812 (p=.000)***
	부채없음	2.95	.81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3)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충남도민의 문화·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성, 전체 여가활동에 관한 5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음.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성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3.5%, '그렇지 않은 편이다' 28.4%, '보통이다' 40.9%, '그런 편이다' 14.4%, '매우 그렇다' 2.8%로 전체 평균은 2.65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가활동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2.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 '보통이다' 44.5%, '그런 편이다' 13.6%, '매우 그렇다' 3.0%로 평균 2.68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도민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과 시설이 도민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1-10>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수준

(단위 : 점, %)

구분	전체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문화·여가시설 접근성과 충분성	2.65	13.5	28.4	40.9	14.4	2.8
전체 여가활동	2.68	12.6	26.4	44.5	13.6	3.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과 학력, 종사상 지위, 권역, 주거점유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00$) 고졸 이하 학력에 비해 대졸이상 학력 집단이 여가활동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30$) 종사상지위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보하였으나 집단 간 차이가 미미하여 scheffe 검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권역은 서해안권에 비해 내륙권 여가활동 만족도가 높고 내륙권에 비해 북부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 주거점유형태에서는 자기집이나 월세/기타 집단에 비해 전세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p=.001$).

<표 1-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2.72	.93	4.252 (p=.000)***
	여성	2.60	.94	
연령	15~19세	2.61	.92	1.955 (p=.142)
	20대	2.69	.94	
	30대	2.65	.94	
학력	고졸이하	2.60	.90	4.715 (p=.030)*
	대학이상	2.69	.95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69	.96	2.567 (p=.025)*
	비임금근로자	2.67	.87	
	미취업자	2.62	.92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2.75	.90	.650 (p=.420)
	100~200만원 미만	2.67	.95	
	200~300만원 미만	2.71	.97	
	300~400만원 미만	2.69	.93	
	400~500만원 미만	2.83	.90	
	500만원 이상	2.74	.95	
부채	부채있음	2.68	.97	-1.604 (p=.109)
	부채없음	2.75	.92	
권역	북부권	2.75	.90	18.159 (p=.000)*** b<c<a
	서해안권	2.44	.97	
	내륙권	2.58	.96	
	금강권	2.62	.97	
거주기간	5년 미만	2.68	.94	.489 (p=.485)
	5~10년 미만	2.67	.93	
	10~15년 미만	2.62	.91	
	15~20년 미만	2.63	.94	
	20년 이상	2.67	.94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2.62	.93	7.391 (p=.001)*** a,c<b
	전세	2.79	.94	
	월세/기타	2.66	.94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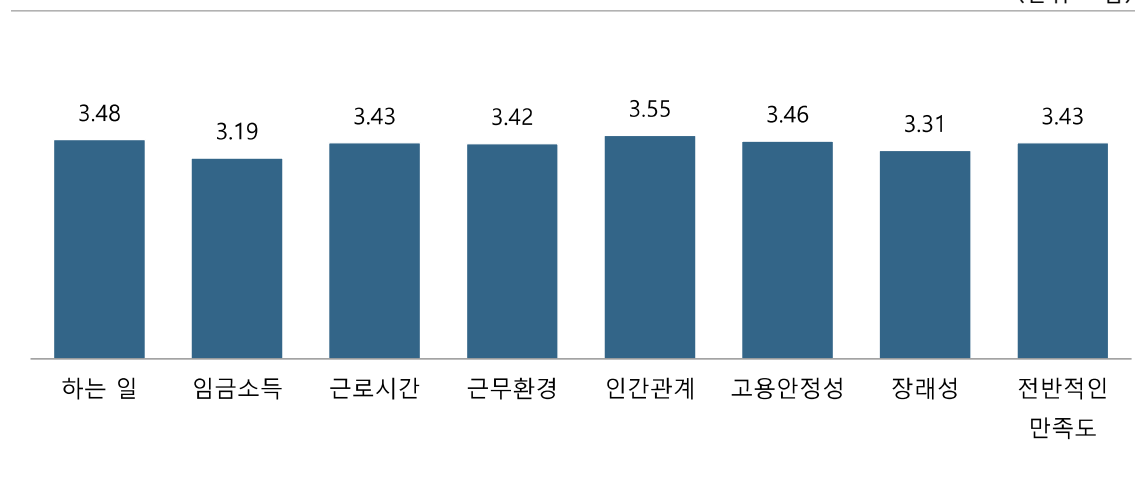


3) 근로여건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는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인간관계, 고용안정성, 장래성,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는 8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를 가지고 살펴보았음. 분석 결과 '인간관계' 만족도가 3.55점으로 가장 높고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가 3.44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3.1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림 1-6>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점)



<표 1-12>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전체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하는 일	3.48	1.9	10.6	37.9	36.9	12.7
임금소득	3.19	4.7	19.0	37.8	29.4	9.0
근로시간	3.43	2.3	10.4	41.5	33.2	12.5
근무환경	3.42	2.5	10.6	41.7	32.9	12.3
인간관계	3.55	1.5	6.8	40.0	38.1	13.5
고용안정성	3.46	3.0	11.6	37.5	32.2	15.6
장래성	3.31	4.0	14.1	40.1	30.5	11.2
전반적인 만족도	3.43	1.5	8.9	44.4	35.2	1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근로여건 만족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과 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02$) 권역은 서해안권(3.31점)에 비해 내륙권(3.48)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p=.007$).



<표 1-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근로여건 만족도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3.36	.77	-2.291 (p=.02)*
	여성	3.43	.74	
연령	15~19세	3.43	.82	.176 (p=.675)
	20대	3.40	.75	
	30대	3.39	.77	
학력	고졸이하	3.28	.76	.004 (p=.949)
	대학이상	3.44	.76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40	.76	.685 (p=.493)
	비임금근로자	3.37	.78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63	.80	.525 (p=.469)
	100~200만원 미만	3.24	.88	
	200~300만원 미만	3.34	.78	
	300~400만원 미만	3.44	.73	
	400~500만원 미만	3.5	.80	
	500만원 이상	3.55	.71	
부채	부채있음	3.45	.77	1.060 (p=.289)
	부채없음	3.41	.77	
권역	북부권	3.38	.73	3.999 (p=.007)** b<c
	서해안권	3.31	.74	
	내륙권	3.48	.79	
	금강권	3.36	.83	
거주기간	5년 미만	3.44	.78	1.788 (p=.181)
	5~10년 미만	3.36	.77	
	10~15년 미만	3.41	.77	
	15~20년 미만	3.33	.71	
	20년 이상	3.38	.76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3.38	.74	.038 (p=.848)
	전세	3.46	.76	
	월세/기타	3.38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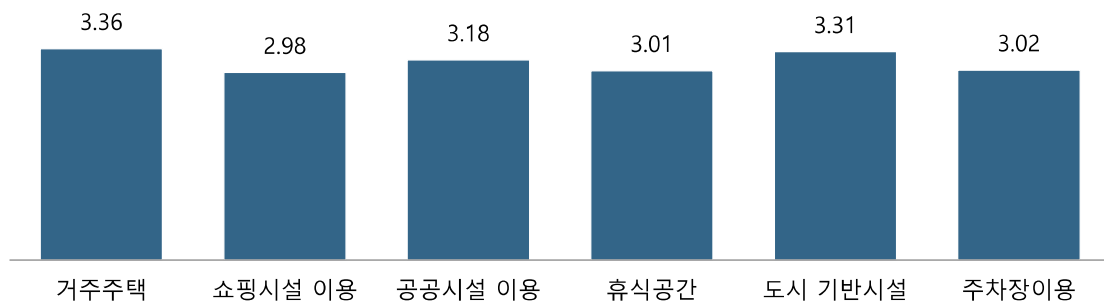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4) 주거환경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는 거주 주택, 쇼핑시설 이용, 공공시설 이용, 휴식공간 이용, 도시 기반시설, 주차장 이용에 따른 만족도를 포함하는 6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분석 결과 거주주택이 3.36점으로 가장 높고 도시 기반시설 이용이 3.3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쇼핑시설 이용이 2.9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림 1-7>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표 1-14>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전체평균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거주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3.36	3.3	13.1	38.9	33.8	10.9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	2.98	9.7	22.1	36.0	24.4	7.8
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공공시설 이용	3.18	4.6	14.2	47.0	26.7	7.5
공원, 놀이터 등 휴식공간 이용	3.01	8.1	20.6	40.6	24.0	6.7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3.31	3.7	8.9	48.6	30.1	8.7
주거지역 내 주차장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3.02	9.3	17.6	42.7	22.8	7.5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주거환경 만족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종사상 지위와 주거점유 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9) 주거점유 형태가 월세/기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자기집이나 전세의 경우 주거환경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

<표 1-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3.16	.77	.601
	여성	3.15	.76	(p=.438)
연령	15~19세	3.43	.82	.176
	20대	3.40	.75	(p=.675)
	30대	3.39	.77	
학력	고졸이하	3.14	.75	-.908
	대학이상	3.17	.77	(p=.364)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3.14	.78	4.720
	비임금근로자	3.27	.74	(p=.009)**
	미취업자	3.16	.76	a<b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3.16	.70	
	100~200만원 미만	3.13	.78	
	200~300만원 미만	3.09	.74	1.404
	300~400만원 미만	3.17	.79	(p=.220)
	400~500만원 미만	3.19	.81	
	500만원 이상	3.22	.79	
부채	부채있음	3.16	.81	.478
	부채없음	3.15	.73	(p=.633)
권역	북부권	3.17	.74	
	서해안권	3.09	.73	2.031
	내륙권	3.18	.81	(p=.107)
	금강권	3.12	.81	
거주기간	5년 미만	3.11	.79	
	5~10년 미만	3.12	.79	
	10~15년 미만	3.20	.75	2.018
	15~20년 미만	3.18	.74	(p=.089)
	20년 이상	3.17	.76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3.19	.76	18.975
	전세	3.20	.79	(p=.000)***
	월세/기타	3.08	.75	c<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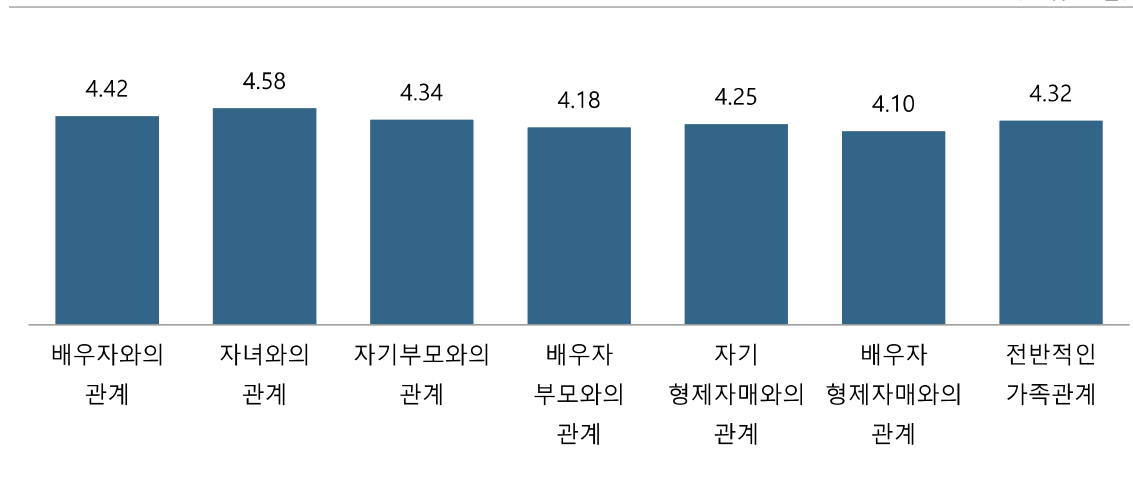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5)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는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기부모와의 관계,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따른 만족도를 포함하는 7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음.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도 평균이 높은 수준이며 자녀와의 관계 만족이 4.58점으로 가장 높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4.42점으로 뒤를 잇고 있음.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4.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8>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점)



<표 1-1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전체평균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배우자와의 관계	4.42	1.0	2.4	11.2	23.8	61.5
자녀와의 관계	4.58	0.2	0.9	8.9	20.7	69.4
자기 부모와의 관계	4.34	0.6	1.8	15.3	27.4	54.9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4.18	1.4	1.9	20.4	29.8	46.6
자기 형제자매와의 관계	4.25	0.8	1.9	18.2	28.9	50.1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4.10	1.2	2.4	24.4	28.7	43.2
전반적인 가족관계	4.32	0.4	1.3	16.6	29.2	52.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가족관계 만족도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소득수준, 부채, 권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연령은 30대 집단에 비해 15~19세, 20대 집단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p=.006$)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대졸이상 집단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00$). 부채가 없는 집단이 부채가 있는 집단에 비해 가족관계 만족도가 더 높고 북부권 거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에 비해 서해안권과 내륙권 거주자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57$).

<표 1-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4.32	.77	.430
	여성	4.31	.76	($p=.668$)
연령	15~19세	4.35	.75	7.439
	20대	4.37	.77	($p=.006$)**
	30대	4.26	.75	c<a,b
학력	고졸이하	4.23	.80	-5.134
	대졸이상	4.35	.74	($p=.000$ ***)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4.31	.76	.088
	비임금근로자	4.30	.80	($p=.814$)
	미취업자	4.32	.7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43	.78	2.439 ($p=.033$)*
	100~200만원 미만	4.26	.91	
	200~300만원 미만	4.24	.79	
	300~400만원 미만	4.32	.77	
	400~500만원 미만	4.39	.67	
	500만원 이상	4.28	.75	
부채	부채있음	4.25	.80	-2.824
	부채없음	4.35	.76	($p=.005$)**
권역	북부권	4.26	.75	3.623
	서해안권	4.38	.76	($p=.057$)*
	내륙권	4.39	.74	a<b,c
	금강권	4.33	.82	
거주기간	5년 미만	4.36	.74	2.264 ($p=.133$)
	5~10년 미만	4.29	.77	
	10~15년 미만	4.30	.74	
	15~20년 미만	4.33	.75	
	20년 이상	4.29	.77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4.33	.74	2.092
	전세	4.33	.76	($p=.124$)
	월세/기타	4.28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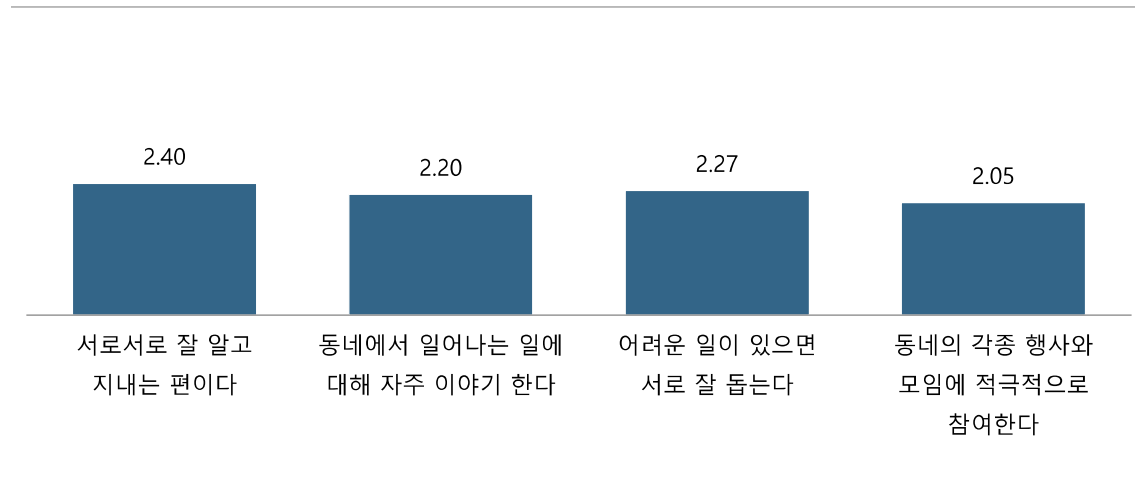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6)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로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평균수준을 밑도는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가 2.40으로 가장 높고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가 2.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1-9> 공동체의식

(단위 : 점)



<표 1-18> 공동체의식

(단위 : 점, %)

구분	전체 평균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2.40	22.7	31.6	30.9	12.6	2.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2.20	28.3	35.9	24.9	9.1	1.8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2.27	27.5	31.0	30.3	9.3	2.0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05	35.3	34.1	22.8	6.2	1.6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공동체의식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를 갖는지 t-test와 ANOVA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령, 학력, 소득수준, 부채, 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연령은 30대 집단보다 15~19세 집단과 20대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06$)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대학이상 졸업 집단이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00$).

소득수준은 통계적으로 $p<.0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음. 부채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35점으로 부채가 있는 집단(4.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은 북부권에 비해 서해안권과 내륙권에서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p=.057$).

<표 1-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검증

(단위 : %)

구분		평균	표준편차	t/ANOVA scheffe
성별	남성	2.19	.93	-2.458 (p=.014)**
	여성	2.26	.92	
연령	15~19세	2.31	.91	2.064 (p=.151)
	20대	2.14	.94	
	30대	2.25	.92	
학력	고졸이하	2.27	.93	2.244 (p=.025)*
	대학이상	2.20	.92	
종사상지위	임금근로자	2.13	.93	31.772 (p=.000)*** a<c<b
	비임금근로자	2.53	.98	
	미취업자	2.28	.90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83	.90	16.797 (p=.000)* a<f
	100~200만원 미만	2.02	.95	
	200~300만원 미만	1.95	.93	
	300~400만원 미만	2.05	.84	
	400~500만원 미만	2.06	.92	
	500만원 이상	2.19	.91	
부채	부채있음	2.11	.91	3.474 (p=.001)***
	부채없음	1.96	.90	
권역	북부권	2.05	.87	60.692 (p=.000)*** a<b,c,d
	서해안권	2.47	.92	
	내륙권	2.40	.98	
	금강권	2.41	.92	
거주기간	5년 미만	2.00	.92	67.713 (p=.000)*** a<b,c,d,e
	5~10년 미만	2.17	.89	
	10~15년 미만	2.28	.88	
	15~20년 미만	2.31	.93	
	20년 이상	2.30	.94	
주거 점유형태	자기집	2.41	.91	117.963 (p=.000)*** b,c<a
	전세	1.99	.86	
	월세/기타	1.99	.92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3. 충남도민 출산지원 정책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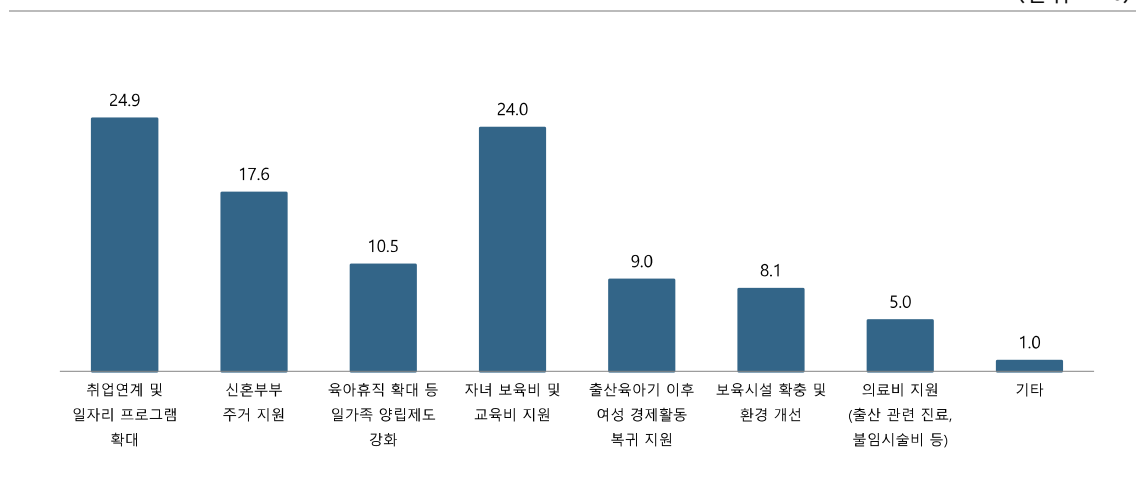
1) 출산지원 정책 우선과제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해야할 출산지원 정책으로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가 24.9%로 가장 높았고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24.0%,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17.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전체 수준과 같은 결과가 나왔고 여성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25.9%로 가장 높고 다음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2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0> 역점 추진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표 1-20〉 성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24.9	27.7	22.0
신혼부부 주거 지원	17.6	22.0	13.0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족 양립제도 강화	10.5	9.1	12.0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4.0	22.1	25.9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9.0	5.7	12.4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8.1	7.4	8.8
의료비 지원(출산 관련 진료, 불임시술비 등)	5.0	5.0	4.9
기타	1.0	1.0	1.0
$\chi^2(p)$	143.350 (p=.0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연령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은 15~19세 집단은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가 35.7%로 가장 높고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24.7%로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30.5%, '신혼부부 주거지원' 23.3%로 높았고 30대의 경우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21〉 연령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구분	15~19세	20대	30대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35.7	30.5	17.3
신혼부부 주거 지원	9.8	23.3	16.4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족 양립제도 강화	7.5	9.8	12.1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4.7	17.0	28.5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7.3	8.3	10.0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8.2	6.3	9.3
의료비 지원(출산 관련 진료, 불임시술비 등)	5.1	4.1	5.5
기타	1.7	0.7	1.0
$\chi^2(p)$	251.744 (p=.0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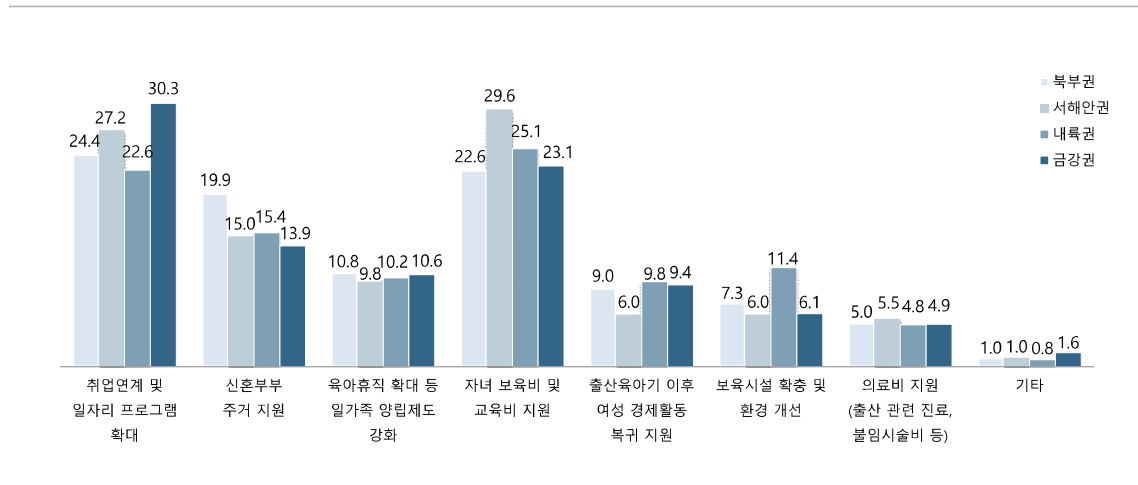


권역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은 북부권과 금강권이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서해안권과 내륙권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 북부권과 금강권은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가 각각 24.4%,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각각 22.6%, 23.1%로 뒤를 잇고 있음.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경우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각각 29.6%, 25.1%로 가장 높았고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가 각각 27.2%, 22.6%로 나타났다. 이외에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모든 권역에서 10~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치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주목해야 할 것은 출산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비 지원 등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임. 즉, 취업연계나 일자리 프로그램 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주거지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그림 1-11> 권역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표 1-22> 권역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

(단위 : %)

구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금강권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24.4	27.2	22.6	30.3
신혼부부 주거 지원	19.9	15.0	15.4	13.9
육아휴직 확대 등 일가족 양립제도 강화	10.8	9.8	10.2	10.6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22.6	29.6	25.1	23.1
출산육아기 이후 여성 경제활동 복귀 지원	9.0	6.0	9.8	9.4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7.3	6.0	11.4	6.1
의료비 지원(출산 관련 진료, 불임시술비 등)	5.0	5.5	4.8	4.9
기타	1.0	1.0	0.8	1.6
$\chi^2(p)$	66.134 (p=.000)***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충남도민의 결혼인식과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함의를 제시하고자 충남사회조사(2022)의 40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함. 분석 결과 '결혼 생각 있다'는 응답이 61.5%, '결혼 생각 없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22.8%가 결혼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30대 연령층의 결혼인식도 낮은 편이었음.

자녀 출산계획이 관해 '출산계획 없다'는 응답이 47.6%로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연령대의 경우 출산계획 없다는 비중이 64.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음.

소득수준에서 300만원 미만인 소득집단에 비해 300만원 이상 집단에서 출산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부채가 있는 경우 출산계획 없다는 비중이 높았음.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결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양육부담, 저출산정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근로여건 만족도, 주거환경 만족도, 가족관계 만족도, 공동체의식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소득수준, 권역, 시군별, 거주기간, 주거점유형태, 주택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음.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저출산 정책 만족도, 문화여가활동만족도, 공동체의식이 평균이하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정책 제언

청년층 결혼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책욕구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연령의 경우 15~19세, 20대에 비해 30대가 '결혼생각 없다'는 응답이 27.6%로 연령대가 당면한 어려움을 제거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일각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신자유주의 속에서 결혼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전명훈, 2019) 분명한 것은 우리사회 고물가, 주택마련 비용 증가 그리고 고용불안정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실제 결혼과 출산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도미향(2011)의 주장을 볼 때, 청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욕구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지역 청년의 삶의 어려움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욕구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으므로 청년층 세대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층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최근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수당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정부는 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 즉,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는 상당수 가정이 맞벌이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기관 확대와 돌봄 자원의 역량강화 그리고 돌봄 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봄. 여기에 아동의 발달주기에 맞는 맞춤형지원정책도 함께 고려한다면 자녀 양육의 이유로 충남을 떠나는 인구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봄.

본 연구에서 공동체의식이나 문화여가생활 만족이 낮게 나타난 점은 현재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이나 생활여건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바 이들이 여가·문화활동 접근성이나 충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낮을수록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높음. 특히 본 연구에서 여가활동 만족도나 공동체의식이 평균수준 이하인 점에 비추어 서해안권에 대한 여가문화활동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공동체의식 수준이 낮게 나타난 북부권에 대한 공동체의식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출산지원 정책으로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욕구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저출산 정책이 단순히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과 주거지원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여기서 주목할 것은 권역별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정책이 도출된 점임. 즉, 금강권은 '취업연계 및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도가 높았던 반면, 북부권은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높았고, 서해안권은 '자녀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내륙권은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서 다른 지역보다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저출산 정책 수립과 지원에 있어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할 때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4), 163-178.

오정아, 김평화, 변수정, 임성은, 김백수, 정지숙(2020). 충청남도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충남사회서비스원

전명훈(2019). 청년층의 결혼의향 및 결혼인식 관련 연구동향 : 국내 학술논문의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2(2), 71-93.

충청남도(2017-2022), 충남 사회조사

주거와 교통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2. 이주의향 결정요인:주거환경의 역할

요약

홍성호²⁾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임준홍³⁾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본 논문은 충남사회조사 2022년 원자료를 이용해 충남도민의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거환경 가운데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계층 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지역 거주, 65세 미만 세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포함하는 충남 북부권 거주자의 경우에 거주주택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감소 시대에 주택 및 주거환경 불만으로 타 도시로의 이주는 도시의 생존과 지속성 측면에서도 문제이다. 양질의 주택공급 및 주거환경 정비로 도시민 이탈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 간 이주의 주요 요인인 주택의 질적 개선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기간을 증가시킬 경우 지역민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충남도의 주택 및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키워드 : 이주의향, 주택, 주거환경

2) 제1저자, 국립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3) 교신저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서론

2021년 기준 인구의 12.3%가 현 거주지와 1년전 거주지가 상이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이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이동자 가운데 64.2%는 시도 내에서 이동하였으며, 이들의 56.3%는 시군구 내에서 이동하였다(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20년 자료를 분석한 박동규·홍성호(2022)에 의하면, 타 지역에서 충남으로 유입한 사람은 260,856명으로 충남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한 244,137명에 비해 16,719명만큼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주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수준과 실제 수준 간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태에서의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구원 수의 감소는 이전에 비해 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주택이 생애주기에 따라 시기별로 상이한 선호를 나타냄을 고려할 때 고령화로 인한 변화 역시 예상된다. 한편, 가구소득의 증가는 그 자체로 보다 큰 주택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킬 것이나 통행시간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주택의 입지 특히, 직장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도 그 선호가 변화할 것이다.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이주의 거래비용을 능가하는 경우 지역 간 이주가 야기된다. 주택 혹은 주거환경에 대한 이상적인 수준과 현재의 수준 간 괴리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며 살아갈 것이나, 현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 또는 애착심과 더불어 이사를 위한 물리적 비용을 포함하는 거래비용보다 충분히 크다면 이주를 통해 효용이 보다 커질 것이다.⁴⁾ 지역 내 주택과 주거시설에 대한 공급이 이들에 대한 변화하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이주를 최소화함으로써 이주에 수반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충남사회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주거환경을 주택, 쇼핑시설, 공공시설, 휴식공간, 기반시설, 주차장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고,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불만족에 의한 이주의향이 어느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이주 혹은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이뤄져 오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가 기대소득이나 일자리 혹은 지역공공재에 있어서의 지역 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본 논문은 주택과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별화된다.⁵⁾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4) 임준홍·홍성호(2014)는 주거환경이 개인의 행복감에 있어 중요함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5) 예외적으로, 최열·김형준(2012)에서 주택유형이나 거주형태가 이주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된다.

변화함에도 주택 혹은 주거환경의 공급에 대한 조정은 그 특성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와 공급 간 괴리에 의한 이주(의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이주의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며,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제3장은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자료와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의 정의 및 기초통계를 기술한다. 제4장은 회귀식 추정을 중심으로 실증분석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 장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한다.

2. 이론적 배경과 분석모형

1)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지역 간 이주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에 의해 설명이 시도되어 오고 있다. Lewis(1954)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에 대해 분석하며, 이주에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서 Todaro(1969)는 기대소득을 포함하는 경제적 요인을 강조하는 반면에 Tiebout(1956)는 공공재나 지방세의 지역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이후에 다수의 연구들은 중력모형, 배출-흡입모형, 선별성모형 등을 이용한다(하상근, 2005).

최근 Bansak, Simpson, and Zavodny(2020)는 이주의 요인을 이전 거주지에서의 '미는 요인(push factor)'와 새로운 거주지에서의 '당기는 요인(pull factor)'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낮은 임금, 높은 세금과 실업률, 인구과밀, 차별, 범죄, 환경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반면에 노동수요, 높은 임금, 관대한 복지제도, 경제성장, 낮은 생활비,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네트워크, 정주여건, 문화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주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 혹은 세대별로 주요한 이주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Clark and Onaka, 1983). 젊은 세대는 일자리를 위해 이주하고, 30대 이상은 결혼, 40대는 자녀의 교육여건, 고령자는 여가 및 복지시설이 이주결정에 있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이다(이를테면, 이찬영, 2018; 강동우, 2016; 홍성호·유수영, 2012).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 공통적으로 삶의 터전으로서 물리적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포함한 주거환경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지와 지역의 특성을 통해 이주가 설명되기도 한다. Porell(1982)은 대도시 간 이주에서 자연환경, 치안, 의료, 복지지출 등으로 측정된 삶의 질이 경제적 요인과 함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다. 서라벌과 성욱준(2019)은 지역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에 초점을 맞춰 이주의향을 설명한다.

한편, Lu(1998)는 미국의 American Housing Survey 1985-1989년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에 대한 만족도나 이주에 대한 의향이 실제 이주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Nowok, Findlay, and McCollum(2016)은 영국의 Household Panel Survey 대상 분석을 통해 이주가 주택에 대한 만족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시켰으며, 이는 삶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에서의 변화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장기(이주 후 5년)에 걸쳐 나타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 분석모형

충남도민의 타 지역으로의 이주의향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회귀식에 대한 추정을 통해 이뤄진다 :

$$y_j = \alpha + amenity_j\beta + X_j\gamma + \epsilon_j \quad (1)$$

여기서, $amenity_j$ 는 가구주 j 의 정주여건 관련 항목들에서의 만족수준(5점 척도)을 나타내는 매트릭스(matrix)에 해당한다. 이들 항목은 환경 체감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사회안전 인식도, 공동체 의식(이웃 간 인지도), 그리고 주거환경 만족도를 포함한다.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거주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쇼핑시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공공시설(시청/군청, 주민센터, 경찰서 등), 휴식공간(공원, 놀이터 등), 기반시설(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주거지역 내 주차장(공간, 시설, 접근성 등)으로 세분하여 정의된다. X_j 는 거주하는 시군, 거주지역의 읍면동 여부, 연령, 성별, 혼인상태, 학력수준, 가구원 수, 현재 거주하는 시군 내 거주기간,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는 매트릭스에 해당하며, ϵ_j 는 통상의 오차항을 나타낸다. 종속변수인 y_j 는 향후 이사계획 여부 혹은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정의되며, 전자의 경우 이항로짓모형으로 추정되고 후자의 경우 다항로짓모형으로 추정된다.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지역, 충남 내 다른 시군, 충남 이외 지역(국외 포함)으로 구분되며, 다항로짓모형에서 기준은 이사의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자료 및 변수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충남사회조사 2022년 자료이다. 이는 충남 도민들 가운데 15천 가구, 24,870명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한다. 가구 내 조사대상은 만 15세 이상의 상주하는 가구원에 해당한다. 조사기준 시점은 2022년 8월 12일이며, 가구주는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를 대표하여 가계의 운영과 관련한 결정에 책임을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 조사는 조사원의 개별 가구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며, 주관적 웰빙, 가구와 가족, 환경, 건강, 여가와 문화, 노동,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안전, 교육, 사회통합 등 삶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영역들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에 포함된 가구주 14,987명 가운데 이주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0.3%에 해당한다.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65.1%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타 지역, 9.6%는 충남 내 다른 시군, 그리고 나머지 25.3%는 충남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의 시기로는 1년 미만이 25.4%에 해당하고 74.6%는 1년 이상의 기간 이후에 이주할 의향인 것으로 나타난다.

2) 변수

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평균 연령은 57세이며, 남성이 47.7%를 차지한다. 조사시점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적으로 35개월로 대략 3년에 해당한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 50.8%, 아파트 41.0%, 연립주택 3.7%, 다세대주택 2.8% 등으로 분포하며, 76.8%가 자가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한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58점으로 중간인 3점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환경 가운데 휴식공간과 쇼핑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표 2-1> 기초통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지역	동지역	0.316	0.465	0	1
	읍지역	0.287	0.452	0	1
	면지역	0.397	0.489	0	1
연령		56.906	18.301	15	101
성별		0.477	0.499	0	1
혼인상태	미혼	0.151	0.358	0	1
	배우자 있음	0.659	0.474	0	1
	사별	0.139	0.346	0	1
	이혼	0.051	0.220	0	1
학력수준	초졸 이하	0.258	0.438	0	1
	중졸	0.117	0.321	0	1
	고졸	0.311	0.463	0	1
	대학 이상	0.314	0.464	0	1
가구원수		2.324	1.139	1	10
시군 내 거주기간(개월수)		34.677	26.237	1	100
주택유형	단독주택	0.508	0.500	0	1
	아파트	0.410	0.492	0	1
	연립주택	0.037	0.188	0	1
	다세대주택	0.028	0.166	0	1
	그 외	0.017	0.131	0	1
주택점유형태	자가	0.768	0.422	0	1
	전세	0.065	0.246	0	1
	보증부 월세	0.075	0.264	0	1
	월세(사글세)	0.057	0.232	0	1
	무상	0.035	0.184	0	1
환경 체감도		3.521	0.883	1	5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2.756	0.883	1	5
대중교통 만족도		3.293	0.965	1	5
사회안전 인식도		3.406	0.787	1	5
이웃과 잘 알고 지냄		3.184	1.164	1	5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3.579	0.965	1	5
	쇼핑시설	3.132	1.017	1	5
	공공시설	3.271	0.931	1	5
	휴식공간	3.129	0.985	1	5
	기반시설	3.328	0.951	1	5
	주차장	3.235	1.041	1	5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4. 실증분석 결과

1) 이주의향 결정요인

<표 2-2>는 충남사회조사 2022년 자료에 포함된 가구주 대상 이주의향 여부에 대한 이향로짓모형 추정결과(한계효과)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속성에 따른 이주의향을 먼저 살펴보면, 동지역이나 읍지역 거주에 비해 면지역 거주 경우 이주의향이 3.1~3.8%p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⁶⁾ 연령이 높거나 남성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주의향이 낮으며,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에 비해 배우자가 있거나 이혼인 경우에 이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수준을 갖는 경우에 비해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갖는 경우 이주의향이 대략 절반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구원 수에 의한 가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주의 가능성이 높아지나, 그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즉, 시군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이주의 확률은 0.1%p 낮아지며, 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친숙함이 거주기간의 증가에 따라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택의 유형이나 점유형태에 따라 이주의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사하고자 하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대체로 높은 편이다. 주택을 자가로 점유하는 경우가 차가로 점유하는 경우에 비해 월등히 이주의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이사에 따른 거래비용-이를테면,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처분시 발생하는 세금 혹은 중개수수료-이 후자에 비해 전자에 있어 상당히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대기, 수질, 토양, 소음이나 진동, 녹지 환경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이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지역 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충분성에서 만족하는 정도의 차이는 이주의향에서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농어촌버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하고자 하는 의향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이 중요함을 함축한다.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건축물이나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정보보안, 신종 감염병, 범죄위험 등 사회안전에

6) 설명변수로 응답자의 연령, 혼인상태, 주택의 유형과 점유형태 등이 회귀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지역 간 거주자 분포의 상이성에 기인하지는 않는다.



대한 인식도는 모형 간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반면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일수록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아 앞에서의 물리적 친숙함과 더불어 인적 네트워크 혹은 유대관계 역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의 지속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거환경과 이주의향 간에 상당히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열 (1)의 결과는 시설, 면적, 구조 등에 있어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사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음을 보여준다. 열 (2)는 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 이용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 이주의향이 낮음을 제시한다. 열 (3)에서의 공공시설 이용, 열 (4)에서의 휴식공간 이용, 열 (5)에서의 사회기반시설, 열 (6)에서의 주차장 이용 역시 그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 영향의 정도를 비교하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사회조사 2013년 자료를 분석한 송두범 외(2015) 역시 충남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 주거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함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 논문에서와 달리 주거시설에서 주택을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쇼핑시설, 공공시설, 휴식공간, 기반시설, 주차장 등과 같이 세부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2-2> 향후 이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한계효과)

구분		(1)		(2)		(3)	
동읍면(동지역)	읍지역	-0.014	(-1.41)	-0.015	(-1.47)	-0.014	(-1.41)
	면지역	-0.031**	(-3.27)	-0.037**	(-3.74)	-0.038**	(-3.83)
연령		-0.002**	(-8.03)	-0.002**	(-7.94)	-0.002**	(-7.96)
성별		-0.018*	(-2.28)	-0.017*	(-2.16)	-0.018*	(-2.24)
혼인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0.052**	-4.01	0.053**	-4.08	0.052**	-4.02
	사별	0.012	-0.68	0.011	-0.6	0.01	-0.54
	이혼	0.028+	-1.93	0.037**	-2.53	0.036*	-2.48
학력수준(초졸 이하)	중졸	0.053**	-3.17	0.053**	-3.06	0.053**	-3.09
	고졸	0.101**	-6.77	0.101**	-6.66	0.101**	-6.66
	대학 이상	0.152**	-9.71	0.147**	-9.23	0.148**	-9.28
가구원수		0.012**	-3.39	0.014**	-3.73	0.014**	-3.85
시군 내 거주기간		-0.001**	(-6.61)	-0.001**	(-6.43)	-0.001**	(-6.48)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0.027**	-3.18	0.025**	-2.86	0.025**	-2.86
	연립주택	0.024	-1.31	0.033+	-1.77	0.036+	-1.89
	다세대주택	0.036*	-2.18	0.039*	-2.35	0.039*	-2.36
	그 외	0.043*	-2.13	0.045*	-2.21	0.045*	-2.18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0.134**	-12.3	0.143**	-13.11	0.144**	-13.14
	보증부 월세	0.084**	-7.8	0.099**	-9.32	0.100**	-9.36
	월세(사글세)	0.119**	-9.91	0.138**	-11.39	0.139**	-11.44
	무상	0.103**	-6.94	0.116**	-7.9	0.114**	-7.74
환경 체감도		-0.015**	(-3.45)	-0.026**	(-6.03)	-0.026**	(-5.83)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0.003	(-0.88)	-0.005	(-1.29)	-0.005	(-1.29)
대중교통 만족도		-0.008*	(-2.16)	-0.009*	(-2.52)	-0.010**	(-2.68)
사회안전 인식도		-0.004	(-0.88)	-0.011*	(-2.40)	-0.010*	(-2.14)
이웃과 잘 알고 지냄		-0.013**	(-3.75)	-0.016**	(-4.52)	-0.016**	(-4.46)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0.045**	(-11.57)				
	쇼핑시설			-0.012**	(-3.22)		
	공공시설					-0.014**	(-3.37)
	휴식공간						
	기반시설						
	주차장						
관측수		10,966		10,966		10,964	
Pseudo R-squared		0.286		0.274		0.274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임. 개별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표시되지 않음.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표 2-3> 향후 이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한계효과) (계속)

구분		(4)		(5)		(6)	
동읍면(동지역)	읍지역	-0.016	(-1.62)	-0.012	(-1.27)	-0.011	(-1.06)
	면지역	-0.038**	(-3.94)	-0.035**	(-3.62)	-0.031**	(-3.10)
연령		-0.002**	(-7.83)	-0.002**	(-7.94)	-0.002**	(-7.60)
성별		-0.018*	(-2.27)	-0.017*	(-2.23)	-0.016*	(-2.00)
혼인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0.053**	-4.06	0.053**	-4.04	0.054**	-4.02
	사별	0.009	-0.5	0.01	-0.53	0.012	-0.63
	이혼	0.034*	-2.34	0.037*	-2.54	0.037*	-2.4
학력수준(초졸 이하)	중졸	0.053**	-3.11	0.053**	-3.06	0.054**	-2.97
	고졸	0.100**	-6.65	0.100**	-6.59	0.102**	-6.43
	대학 이상	0.146**	-9.22	0.147**	-9.22	0.149**	-8.91
가구원수		0.013**	-3.55	0.014**	-3.8	0.014**	-3.7
시군 내 거주기간		-0.001**	(-6.49)	-0.001**	(-6.51)	-0.001**	(-6.43)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0.029**	-3.29	0.027**	-3.05	0.029**	-3.17
	연립주택	0.034+	-1.8	0.033+	-1.74	0.037+	-1.87
	다세대주택	0.042*	-2.49	0.040*	-2.37	0.037*	-2.17
	그 외	0.046*	-2.24	0.045*	-2.2	0.053*	-2.47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0.144**	-13.2	0.144**	-13.15	0.150**	-13.19
	보증부 월세	0.101**	-9.48	0.100**	-9.36	0.102**	-9.16
	월세(사글세)	0.139**	-11.51	0.140**	-11.53	0.141**	-11.27
	무상	0.117**	-7.98	0.116**	-7.84	0.126**	-8.21
환경 체감도		-0.022**	(-5.00)	-0.026**	(-5.74)	-0.025**	(-5.44)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0.001	(-0.40)	-0.006	(-1.64)	-0.005	(-1.22)
대중교통 만족도		-0.009*	(-2.36)	-0.011**	(-2.88)	-0.011**	(-2.79)
사회안전 인식도		-0.009+	(-1.91)	-0.010*	(-2.16)	-0.007	(-1.57)
이웃과 잘 알고 지냄		-0.016**	(-4.45)	-0.017**	(-4.68)	-0.017**	(-4.56)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쇼핑시설						
	공공시설						
	휴식공간	-0.023**	(-5.97)				
	기반시설			-0.011**	(-2.68)		
	주차장					-0.021**	(-6.02)
관측수		10,965		10,964		10,426	
Pseudo R-squared		0.276		0.274		0.272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임. 개별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표시되지 않음.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2) 이주의향의 계층 간 차이

<표 2-4~5>는 향후 이주의향 여부에 대한 이향로짓모형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 해당한다.⁷⁾ 거주하는 주택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 있어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은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군지역 거주자에 비해 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보다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64세 이하의 연령, 2인 이상의 가구원수, 북부권 거주, 가구 내 미취학 자녀 존재의 경우에 이주에 있어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반면에 동지역 거주와 읍 혹은 면 지역 거주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2-4> 향후 이주의향에 대한 이향로짓모형 분석결과(한계효과) : 집단 간 차이

(단위 : %)

구분	동부 vs. 읍면부		시지역 vs. 군지역		연령대		
	동지역	읍면지역	시지역	군지역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거주주택 만족도	-0.047** (-5.54)	-0.043** (-10.44)	-0.053** (-9.46)	-0.033** (-6.48)	-0.066** (-4.22)	-0.065** (-8.86)	-0.024** (-6.62)
관측수	3,622	7,344	6,784	4,182	1,358	4,504	5,104
Pseudo R2	0.170	0.347	0.239	0.338	0.106	0.153	0.244

주 : 회귀분석에는 응답자의 속성과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및 점유형태,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결과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되지 않음.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표 2-5> 향후 이주의향에 대한 이향로짓모형 분석결과(한계효과) : 집단 간 차이 (계속)

(단위 : %)

구분	가구원수		권역				미취학 자녀	
	1인	2인 이상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	있음	없음
거주주택 만족도	-0.027** (-4.58)	-0.058** (-11.14)	-0.066** (-8.63)	-0.028** (-3.37)	-0.040** (-5.68)	-0.031** (-3.76)	-0.076** (-3.19)	-0.043** (-10.91)
관측수	4,520	6,446	4,051	1,913	3,017	1,985	551	10,386
Pseudo R2	0.324	0.274	0.212	0.339	0.335	0.337	0.181	0.281

주 : 회귀분석에는 응답자의 속성과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및 점유형태, 지역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포함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결과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되지 않음.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7) 거주지역, 연령, 성, 혼인상태, 학력수준, 가구원수, 시군 내 거주기간,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환경 체감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사회안전 인식도, 공동체식(이웃과의 관계) 등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었으나 이들에 대한 추정결과는 지면상의 제약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3) 이주의향 목적지

<표 2-6>은 이주의향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이주, 충남 내 다른 시군으로의 이주, 그리고 충남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 각각에 대한 의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시군 내 거주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길수록 물리적으로 보다 먼 거리의 이주에 대한 의향이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이주보다는 충남 내 다른 시군으로 이주의 가능성이 보다 낮고, 충남 내 다른 시군으로의 이주보다는 충남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가능성이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가구원 수가 커질수록,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이주의 가능성은 증가하는 반면에 충남 이외 지역으로의 이주의 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가구원의 증가는 이전에 비해 보다 넓은 물리적 공간을 갖는 주택으로의 이주를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밖-특히, 충남을 벗어나는 지역으로의 이주는 근무지가 함께 변화하지 않는 한 통근이나 통행의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낮은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거주하는 주택이나 인근 정주여건들 가운데 거주하는 주택의 만족도가 이주의향 보다 큰 영향을 나타낸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이주의 가능성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거주지로부터의 단거리 이주를 통해 인근 정주여건에서 변화가 크지 않음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결과로 간주된다.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고 대중교통 여건에서의 차이 역시 광역시도 간에 두드러짐을 전제로 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충남 이외로의 이주에 보다 영향이 클 것이며, 분석결과는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표 2-6〉 향후 이주의향에 대한 이항로짓모형 분석결과(한계효과) (계속)

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군 내		충남 내 다른 시군		충남 이외	
동읍면(동지역)	읍지역	-0.167+	(-1.71)	0.004	-0.02	-0.034	(-0.22)
	면지역	-0.334**	(-3.40)	-0.299	(-1.32)	-0.128	(-0.98)
연령		-0.027**	(-7.76)	-0.031**	(-4.06)	-0.016**	(-3.09)
성별		-0.168*	(-2.16)	-0.263	(-1.56)	-0.069	(-0.62)
혼인상태(미혼)	배우자 있음	0.465**	-3.53	0.676**	-2.75	0.372*	-2.23
	사별	0.191	-1.01	0.028	-0.06	-0.115	(-0.38)
	이혼	0.344*	-2.34	-0.069	(-0.20)	0.11	-0.52
학력수준(초졸 이하)	중졸	0.505**	-3.12	1.138*	-1.96	0.039	-0.11
	고졸	0.850**	-5.94	1.303*	-2.34	0.768**	-2.67
	대학 이상	1.134**	-7.48	2.070**	-3.61	1.501**	-5
가구원수		0.200**	-5.47	-0.028	(-0.32)	-0.093+	(-1.65)
시군 내 거주기간		-0.004*	(-2.02)	-0.018**	(-3.49)	-0.033**	(-9.00)
주택유형 (단독주택)	아파트	0.254**	-2.95	0.153	-0.8	0.238+	-1.89
	연립주택	0.273	-1.55	0.446	-1.14	-0.076	(-0.24)
	다세대주택	0.415**	-2.58	0.227	-0.69	0.043	-0.18
	그 외	0.381+	-1.96	0.261	-0.58	0.487+	-1.89
주택점유형태 (자가)	전세	1.371**	-13.04	0.798**	-3.45	0.589**	-3.53
	보증부 월세	0.874**	-8.28	0.476+	-1.96	0.330*	-2.09
	월세(사글세)	1.176**	-9.75	0.434	-1.62	0.786**	-4.86
	무상	0.604**	-3.6	0.4	-1.09	1.212**	-7.41
환경 체감도		-0.114*	(-2.52)	-0.199+	(-1.92)	-0.196**	(-3.20)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0.061	-1.51	-0.06	(-0.65)	-0.233**	(-4.18)
대중교통 만족도		-0.048	(-1.26)	0.102	-1.22	-0.193**	(-3.52)
사회안전 인식도		-0.04	(-0.85)	-0.146	(-1.50)	0.013	-0.19
이웃과 잘 알고 지냄		-0.065+	(-1.81)	-0.231**	(-2.83)	-0.226**	(-4.26)
거주주택 만족도		-0.459**	(-11.37)	-0.443**	(-4.87)	-0.204**	(-3.78)
상수향		0.482	-1.51	-0.863	(-1.00)	0.838	-1.55
Pseudo R-squared				0.243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t-값임. 개별 시군에 대한 더미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었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인해 표시되지 않음. 관측수는 10,957명에 해당함
 자료 : 충남도청, 「충남사회조사」 2022



5. 결론

본 논문은 충남사회조사 2022년 자료를 이용해 충남도민의 이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주의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거환경 가운데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만족도가 이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계층 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되며, 시지역 거주, 65세 미만 세대,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가구,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를 포함하는 충남 북부권 거주의 경우에 특히 거주 주택의 만족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감소를 넘어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시대에 생활하는 도시에서의 주택·주거환경 불만으로 인한 타 도시로의 이주는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결과 주택에 대한 불만이 주거이동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해당 시군 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주의향이 낮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충남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충남의 주택·주거정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양질의 주택공급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두고, 1인가구의 증가 및 분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세대통합형 주택 및 주거환경의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 세대통합형 주택·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사업'⁸⁾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주택과 주거환경이 주거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기 이루어졌지만, 분석의 자료가 주거실태조사와 같은 주거에 초점을 둔 조사라기보다는 주거를 포함한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의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투입된 독립변수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충남 시군의 주거실태조사에 초점을 둔 연구가 요구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8) 충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와 기존세대들이 함께 지속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사업을 민선 8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정부의 투자심사 면제 등에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동우, 2016,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고용”, 정책연구 2016-01, 한국노동연구원.
- 박동규·홍성효, 2022, “인구이동과 인적자본의 지역 간 불균형”, 충남연구 6(2): 85-102.
- 서라벌·성욱준, 2019,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질에 이주 의향에 미친 영향 연구: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4): 199-223.
- 송두범·임준홍·홍성효,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임준홍·홍성효,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충남지역을 사례로 -”, 주거환경 12(2): 137-152.
- 최열·김형준, 2012,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주거이동 결정요인 비교 분석”, 국토계획 47(4): 219-231.
- 하상근, 2005, “지역간 인구이동의 실태 및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9(3): 309-332.
- 홍성효·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Bansak, C., Simpson, N., and Zavodny, M., 2020.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Oxford: Routledge.
- Clark, W., and Onaka, J., 1983. “Life cycle and housing adjustment as explanations of residential mobility”, Urban Studies 40: 47-57.
- Lewis, A., 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139-191.
- Lu, M., 1998. “Analyzing Migration Decisionmaking: Relationships between Residential Satisfaction, Mobility Intentions, and Moving Behavior”, Environment and Planning A: Economy and Space, 30(8): 1473-1495.



- Nowok, B., Findlay, A., and McCollum, D., 2018. "Linking residential relocation desires and behaviour with life domain satisfaction", *Urban Studies* 55(4): 870-890.
- Tiebout, C., 1956. "A pure theory of local public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 416-424.
- Todaro, P., 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138-148.
- Porell, F., 1982. "Intermetropolitan migration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2(2): 137-158.

도민의 삶과 정책

보고서 발간에 참가한 사람

연구진

오정아(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홍성호(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부교수)
임준홍(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

남성연(데이터정책관)
이 정(통계데이터팀장)
조혜현(담당자)

(주)글로벌리서치

김태영(글로벌리서치 연구상무)
서현창(글로벌리서치 연구부장)
황소희(글로벌리서치 연구과장)
신지혜(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이지선(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71-10)

2022 도민의 삶과 정책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충청남도지사

발 행 처 충청남도청

주 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